

목록규칙에 있어 家系の 속성과 관계의 기술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Families in Cataloging Rules

이 창 수(Changsoo Lee)*

〈 목 차 〉

I. 서 론	1. 가계와 자원 간의 관계 기술
II. 도서관 현장에서의 가계 기술의 실상	2. 가계와 개인, 가계, 단체 간의 관계 기술
III. 가계의 속성 기술과 접근점의 구성	V.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위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
1. 가계의 속성 기술	
2. 접근점의 구성	VI. 결 론
IV. 가계의 관계 기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RDA를 중심으로 FRAD, DACS2, KCR2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목록규칙에 있어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대한 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계의 속성 기술은 가계의 이름, 유형, 날짜, 장소, 저명인사, 세습칭호, 언어, 가계사, 식별기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계의 관계 기술은 저작과 관련된 가계, 표현형과 관련된 가계, 구현형과 관련된 가계, 개별자료와 관련된 가계 등 각각의 자원과 관련된 가계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였고, 가계와 개인 간의 관계, 가계와 가계 간의 관계, 가계와 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RDA를 중심으로 목록규칙들에서의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가계의 관계 기술, 가계의 속성 기술, 영미목록규칙, 자원의 기술과 접근, 한국목록규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to apply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families to Korean Cataloging Rul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FRAD conceptual model, and the cataloging rules such as RDA, DACS2 and KCR2 were analyzed. For describing attributes of families, this study analyzed name, type, date, place, prominent member, hereditary title, language, history, and identifier of families. For describing relationships of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describing relationships to families associated with each resource, such as a work, an expression, a manifestation, and an item, and describing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and persons, and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and corporate bodi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families in Korean Cataloging Rules.

Keywords: AACR,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DACS, KCR, Korean cataloging rules, Describing attributes of families, Describing relationships of families, RDA,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sl@knu.ac.kr)

•논문접수: 2015년 8월 4일 •최초심사: 2015년 8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27-49,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27]

I. 서론

AACR2(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과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그리고 국제목록전문가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국제목록원칙인 ICP(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를 반영하여 2010년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RDA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원을 포괄하고,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두루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2013년부터 미국의회도서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신규 목록작성에 AACR2를 대체하여 RD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Mering 2014, xvii), 201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서양서의 목록규칙으로 AACR2를 대체하여 RD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http://www.nl.go.kr/nl/notice/notice_view.jsp?board_no=7810¬ice_type_code=1).

한국의 경우, 1966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韓國圖書館協會 編 1966, 이하 KCR2)까지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형식을 포함하였으나, 1983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3판(韓國圖書館協會 制定 1983, 이하 KCR3)과 2003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2003, 이하 KCR4)에서는 이마저도 규정하지 않았다. FRBR의 제2그룹의 개체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던 가계가 FRAD에서는 서지적 개체의 하나로 제시되어 그 속성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AACR2가 RDA로 개정되면서 가계의 속성과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목록규칙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KORMARC의 초기에서부터 가계명(가족명)은 개인명 유형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왔으며, 근래의 KORMARC 전거통제용 개정(안)에서는 가계명 이외에 가계의 속성을 기술하기 위한 가계가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장소, 가계와 연계된 장소를 기술하기 위하여 370(관련 장소) 필드를 두고 있고, 가계에 관련된 부가 정보 즉 가족의 유형, 유명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 세습작위, 시작기간, 종료기간 등의 구체적인 가계의 속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376(가족정보) 필드를 두고 있다. 아울러 가계가 출판이나 의사소통 등에 사용하는 언어 또는 저작이 표현된 언어를 기술할 수 있도록 377(관련 언어) 필드를 마련하였다. 한국에서는 가계명이 기본표목, 부출표목, 총서부출표목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가계를 위한 속성과 관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허다하게 출판되는 족보자료나 가문, 종중, 왕조 등에 관한 모든 자료가 가계에 대한 주제명부출표목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계의 속성과 관계에 대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DA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로는 박진희(2009), 이미화(2010, 2011a,

2011b), 안서현과 이창수(2014) 등의 연구가 있으나,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RDA에 있어서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논제로 삼았다. 본 연구는 RDA를 중심으로 가계의 속성과 관계를 분석하되, 가계를 별도의 서지적 개체로 제시한 FRAD와 기록물의 서지기술을 위한 규칙으로 대상 자료의 성격상 가계의 기술이 중요시되는 DACS2(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2nd ed. 2013) 그리고 한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표목에 대해서 규정한 KCR2 등에서 항목에 따라 RDA를 한국 목록규칙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차 한국목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대한 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도서관 현장에서의 가계 기술의 실상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논하기 이전에 도서관 현장에서 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ORMARC 단행본용(국립중앙도서관 1993)에서 가계에 대한 표목으로서 100(기본표목 - 개인명), 600(주제명부출표목 - 개인명), 700(부출표목 - 개인명) 필드의 제1지시기호의 3에서 ‘가족명’으로 명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KORMARC 전거통제용(국립중앙도서관 1999)에서도 가계에 대한 표목으로서 100(표목 - 개인명) 필드와 부출로서 400(보라부출 - 개인명)과 500(도보라부출 - 개인명) 필드의 제1지시기호의 3에서 ‘가족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서지용이나 전거통제용 KORMARC 모두에서 가계에 대한 사항을 개인명 필드에서 제1지시기호의 구분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KORMARC 통합서지용(국립중앙도서관 편저 2006)과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편저 2014)에서는 가계에 대한 표목을 100(기본표목 - 개인명), 600(주제명부출표목 - 개인명), 700(부출표목 - 개인명), 800(총서부출표목 - 개인명) 필드의 제1지시기호의 3에서 ‘가계명(家系名, family name)’으로 명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KORMARC 전거통제용 개정(안)(국립중앙도서관 2015)에서도 가계에 대한 표목으로서 100(표목 - 개인명) 필드와 부출로서 400(보라부출 - 개인명)과 500(도보라부출 - 개인명) 필드 그리고 700(채택표목 연관저록 - 개인명) 필드의 제1지시기호의 3에서 ‘가계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MARC 21의 서지용(Library of Congress 2015b)이나 전거통제용(Library of Congress 2015a)에서도 개인명을 위한 필드들의 제1지시기호의 3에서 ‘Family name’으로 명시하여 가계를 취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KORMARC에서는 통합서지용 이후부터 ‘가족명’을 ‘가계

명'으로 변경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가계에는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¹⁾ 이외에 가문의 이름, 宗中, 왕조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KORMARC 통합서지용과 전거통제용 개정(안)에서 협의의 '가족명'에서 보다 포괄적인 '가계명'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家系를 혈연적 유대의 범위를 결정하는 그 사회의 出系원리에 따라 관념적으로 인지되거나 제도화되어 내려오는 한 집안의 계통체계, 또는 혈연적 분파집단이라 정의하고, 가계는 선대의 입장에서는 대를 물린 결과이며, 후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대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家, 즉 집안은 世系가 거듭될수록 堂內·門中과 같은 가족 단위 이상의 조직체 또는 비조직적인 범주로 그 인지 범위가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http://encykorea.aks.ac.kr/>). 이러한 연유로 한국목록규칙에서 개체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규정할 때에도 '가족' 대신에 '가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행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에서는 가계를 취급함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100, 600, 700, 800필드에서 제1지시기호의 개인명의 유형 중의 하나인 지시기호 '3' 즉 가계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KORMARC 전거통제용 개정(안)에서도 가계를 100, 400, 500, 700필드에서 제1지시기호의 개인명의 유형 중의 하나인 지시기호 '3' 즉 가계명으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의 가계명은 가족명, 씨족명, 왕조명, 가문명 또는 다른 유사 집단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름은 순서대로 구성되거나 도치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5, 103).

KORMARC 전거통제용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가족명 이외에 가계의 속성을 기술하기 위한 필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서는 가계명 이외에 가계의 속성을 기술하기 위한 필드로 가계가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장소, 가계와 연계된 장소를 기술하기 위하여 370(관련 장소) 필드를 두고 있다. 또한 가계에 관련된 부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376(가족정보)를 두고 있다. 특히 이 376필드에서는 식별기호로 가족의 유형(▼a), 유명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b), 세습작위(▼c), 시작기간(▼s), 종료기간(▼t) 등의 구체적인 가계의 속성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376필드의 명칭을 '가족정보'로, 식별기호 ▼a를 '가족의 유형'으로, ▼b를 '유명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가족명을 가계명으로 변경한 것을 고려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가계정보', '가계의 유형', '유명한 가계 구성원의 이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가계가 출판이나 의사소통 등에 사용하는 언어 또는 저작이 표현된 언어를 기술

1) 현행 민법 제779조(2005년 3월 31일 개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377(관련 언어) 필드를 마련하였다.

한국에서는 가계명이 기본표목(100필드), 부출표목(700필드), 총서부출표목(800필드)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가계명이 주제명부출표목(600필드)이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허다하게 출판되는 족보가 그러하며 가문이나 종중 그리고 왕조 등에 관한 모든 자료가 가계명에 대한 주제명부출표목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가계명에 대한 주제명부출표목(600필드)을 기입한 예를 발견할 수가 없다. 게다가 족보를 제외한 성씨에 대한 일반도서(예, 전주이씨 덕천군과 종택 한글 간찰)의 경우에는 가계명으로서의 성씨에 대한 주제명부출표목(600필드)은 물론 여타의 주제명부출표목(650, 653필드 등)을 부여한 것 또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검색(<http://www.nl.go.kr/nl/>)에서 MARC 보기를 해 본 결과 족보에 대한 주제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기 전에는 대개 비통제색인어(653필드)로, 적용한 후에는 일반주제명(650필드)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족보, 문중, 왕실, 왕조에 관한 자료는 계보명으로서 주제명부출(600필드)이 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① 비통제색인어 적용

245 10 ▼ a星山李氏世誌 / ▼ d李基定 刊編

653 bb ▼ a족보 ▼ a성산이씨 ▼ a성산이씨세지

245 00 ▼ a安東權氏僕射公派譜 / ▼ d安東權氏僕射公派譜所 編

653 bb ▼ a족보 ▼ a안동권씨 ▼ a복사공파 ▼ a안동권씨복사공파보

245 10 ▼ a金海許氏竹溪公派世譜 / ▼ d許永道 [編]

653 bb ▼ a김해허씨 ▼ a죽계공파 ▼ a세보

245 00 ▼ a李王家親戚表 / ▼ d李王職

653 bb ▼ a족보 ▼ a선원 ▼ a이왕가친척표

② 일반주제명 적용

245 20 ▼ a(김해김씨 삼현파) 진주진안대중친회약사 / ▼ d편집: 김제경

650 b8 ▼ a김해 김씨[金海金氏]

245 00 ▼ a고령 박씨(高靈朴氏) 이야기 / ▼ d편저: 성씨이야기편찬실

650 b8 ▼ a고령 박씨[高靈朴氏]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3호)

245 00 ▼ a덕수이씨 800년 / ▼ d이천용 엮음

650 ㄹ8 ▼ a덕수 이씨[德水李氏]

245 20 ▼ a(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 ▼ d박영규 지음

650 ㄹ8 ▼ a고려 왕조[高麗王朝]

이들 자료에 대한 주제명부출은 후술할 접근점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여 가계의 유형과 한자, 성씨의 경우에는 과명과 집성촌 그리고 필요하면 가계 중의 저명인사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에서의 가계명에 대한 접근점이 주제명표목으로서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한국목록규칙에서 가계명의 속성과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목록규칙을 RDA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하려는 현 시점에서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대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Ⅲ. 가계의 속성 기술과 접근점의 구성

FRAD(3.4, 이하 각 목록규칙 약칭 다음의 원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해당 조항번호 임)에 서는 가계를 출생이나 결혼, 입양, 합법적 동성결혼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신분으로 관련되었거나 혹은 스스로를 하나의 가계로 표현하는 둘 이상의 인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가계에는 왕가나 왕조, 귀족가문 등과 부계와 모계, 공통으로 조상의 혈통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 가족단위(부모와 아이들, 손자 등), 집합적인 관점에서 귀족 가문의 작위 승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가계에는 앞서 살펴본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 이외에 가문, 宗中, 왕가, 왕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도 개체를 나타내는 한글 용어로서는 가족이라는 협의의 용어보다는 광의의 가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1. 가계의 속성 기술

가계의 속성 기술 요소로 FRAD(4.2)에서는 가계의 유형, 가계와 관련된 날짜, 가계와 관련된 장소, 활동분야, 가계사 등을 들고 있고, RDA(10)에서는 가계명, 가계의 유형, 가계와 관련된 날짜, 가계와 관련된 장소, 가계의 저명인사, 세습칭호, 가계의 언어, 가계사, 가계의

식별기호 등을 들고 있다. RDA의 속성 기술 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항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FRAD와 DACS2 그리고 KCR2에서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계명

RDA(10.2.1.1)에서 정의하는 가계명은 한 가계를 나타내는 단어, 문자, 단어들과 문자들의 그룹, 단어들 또는 문자들의 그룹이다. 가계를 식별하기 위한 가계명은 채택된 가계명과 이형 가계명으로 범주화되는데, 채택된 가계명은 핵심 요소이고 이형 가계명은 선택 요소이다.

(1) 채택된 가계명

RDA에서 채택된 가계명은 가계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이다(10.2.2.1). 가계명의 선정은 가계와 관련된 자원에서 채택된 정보원, 가계와 관련된 자원에서 나타나는 기타 공식적인 기재사항, 기타 정보원(참고 정보원 포함)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0.2.2.2).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계명을 채택된 가계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이름은 가계 구성원이 사용한 성, 왕실명, 왕조명, 씨족명 등이 될 수 있다(10.2.2.3). 한국에서는 족보자료와 같은 경우 가문의 가계명이 본관과 성씨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씨에 따라서는 같은 본관이라 하더라도 파가 여럿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계명은 본관과 성씨 그리고 파명까지 포함하여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가계명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가계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는 국가에서 작성된 권위 있는 이름 리스트(예, “who's who” 타입)에 기재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한다. 그러나 가계가 선호하는 이름이 일반적인 용법과 다르다면 첫 요소로 기술될 부분을 선정할 때 가계의 선호도를 따른다(10.2.2.4).

①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RDA(10.2.2.5)에서 완전성, 언어, 문자, 철자가 다양한 가계명은 개인명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사용법 중에 적합한 것을 적용한다. 이를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의 형식이 완전성 면에서 서로 다르다면 RDA(9.2.2.5.1)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하나의 주된 형식이 없다면 최신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며, 어떤 형식이 최신 형식인지 의문스러운 경우 더 완전하거나 가장 완전한 형식을 선정한다. KCR2(42)의 경우 가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개인명(저자)에 대한 규정에서 한 저자에 대하여 일단 주어진 형식의 성명은 저자부출 또는 주제명 기입을 막론하고 표목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언제나 최초에 채택된 형식을 통일표목으로 하며 그 이외의 성명으로부터는 부출하거나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비록 완전성 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최초에 채택된 형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가계명도 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원용한다면 RDA에서의 최신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장차 한국목록규칙을 개정 할 시에는 개인명과 더불어 가계명에 관한 정교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름이 가계와 관련된 자원에서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난다면 RDA(9.2.2.5.2)에서는 자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언어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이름이 가계와 관련된 자원에 나타나지 않거나 모호하다면 가계의 거주 국가나 활동 국가의 참고 정보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식을 선정한다.

셋째, 채택되지 않은 문자로 기재된 이름의 경우, RDA(9.2.2.5.3)에서는 名 등이 채택된 이름의 첫 요소로 기술되고 그 기관이 채택한 문자와 다른 문자로 기재된 경우는 데이터 작성 기관이 채택한 언어로 참고 정보원에 잘 마련되어 있는 이름의 형식을 선정하되, 참고 정보원에 여러 형식들이 발견된다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형식을 선정한다. 만일 데이터 작성 기관이 채택한 언어로 된 이름의 형식을 발견할 수 없거나 주된 형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채택한 언어 변환표에 따라 이름을 번자한다. 성이 첫 요소로 기술되고 그 기관이 채택한 문자와 다른 문자로 기재된 경우는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채택한 언어 변환표에 따라 이름을 번자한다. 그리고 번자된 이름의 형식이 관련 정보원에서 유일하게 발견된다면 그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둘 이상 발견된다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형식을 선정한다. 둘 이상의 채택되지 않은 문자로 기재된 이름의 경우는 대부분의 저작물에서 주로 기재된 언어를 위한 변환표에 따라 번자한다. KCR2(51)에 따르면, 타국어형의 문자를 사용한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그 저자의 모국어형 문자를 표목으로 하고 그 도서에 표시된 刑名으로부터 참조하고, 모국어형 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도서에 표시된 형식을 채기한다. 이 경우 가계명도 저자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가계명에 적용하여 모국어형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번자의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으나 그 기관에서 채택한 문자와 다르게 되므로 채택된 가계명으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넷째, 이형의 철자로 기재된 이름의 경우, RDA(9.2.2.5.4)에서는 이름의 상이한 철자가 발견되고, 이 이형들이 번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입수한 정보원에서 나타난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KCR2(51)에 따르면, 타국어형의 철자를 사용한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그 저자의 모국어형 철자를 표목으로 하고 그 도서에 표시된 刑名으로부터 참조하고, 모국어형 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도서에 표시된 형식을 채기한다. 이 경우 역시 문자와 마찬가지로 가계명도 저자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문자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채택된 가계명으로 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② 동일 가계에 대한 상이한 이름

RDA(10.2.2.6)에서 변경된 이름이 하나 이상인 가계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면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가계명을 선정한다. 그렇게 선정할 수 없다면 가계와 관련된 자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참고 정보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의 순서대로 이름을 선정한다.

③ 이름의 변경

RDA(10.2.2.7)에서는 가계명이 변경되었다면(언어를 변경한 경우 포함) 이름과 관련된 자원에서 변경된 이름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KCR2(47)에서는 개인명의 경우 改姓改名한 저자는 최신의 성명을 채기하고 前 姓名으로부터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 이후에도 전 성명을 상용하거나 그 성명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 성명을 채기하고 신 성명으로부터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가계명은 변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있다손 치더라도 전의 가계명을 상용하거나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이름을 그대로 채택된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성

RDA(10.2.2.8)에서 채택된 이름이 성이나 성의 기능을 하는 이름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이름을 가계명으로 기술한다. 한국에서는 본관과 성씨를 중심으로 씨족명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은 가장 핵심적인 가계명의 속성 요소라 할 수 있다.

⑤ 왕실명, 왕조명, 씨족명 등

RDA(10.2.2.9)에서 채택된 이름이 왕실명, 왕조명, 씨족명 등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이름을 가계명으로 기술한다. 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대로 통용되는 규정이라고 본다.

(2) 이형 가계명

RDA(10.2.3.1)에서 이형 가계명이란 채택된 가계명이나 가계명의 형식 이외에 가계가 가진 가계명이나 가계명의 형식이다. 이형 가계명은 AACR2나 KCR2에서 가계명에 대한 참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

RDA(10.2.3.4)에서 채택된 가계명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면 그 형식들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51)에서 타국어형의 문자와 철자를 사용한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그 저자의 모국어형 문자와 철자를 표목으로 하고 그 도서에 표시된 刑名으로부터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가계명이 저자가 될 때 그 도서에 표시된 刑名이 채택된 가계명이 아닐 경우 이형 가계명의 대상이 된다. 개정할 한국목록규칙에서는 KCR2에서와 같이 개별 사항별로 언급할 것이 아니라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이형의 가계명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세습 칭호

RDA(10.2.3.5)에서 가계와 관련된 세습 칭호를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칭호에 포함된

본명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뒤에 쉼표를 찍은 뒤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를 복수형으로 기술한다(예, Chandos, Dukes of). 동양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태국 등 입헌군주국의 왕족이나 귀족가문의 경우 나름의 세습 칭호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계명 이외의 속성

(1) 가계의 유형

FRAD(4.2)에서 가계의 유형에 대한 범주나 통칭의 기술어로 씨족, 왕조, 가족단위, 부계사회, 모계사회 등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RDA(10.3)에서 가계의 유형은 가계의 유형에 대한 범주나 통칭의 기술어이다. 적절한 용어(예, 가족, 씨족, 왕실, 왕조 등)를 사용하여 가계의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를 기술한다. FRAD에서 가계의 유형으로 부계사회와 모계사회 등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형은 특정하기가 어려움으로 가계의 유형에 대한 한글 용어는 민법상의 가계인 경우는 ‘가족’으로, 집안이나 문중 단위의 경우에는 ‘가문’으로, 왕조 시대나 입헌군주제 국가의 왕가의 경우에는 ‘왕실’이나 ‘왕조’ 등의 명칭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가계와 관련된 날짜

FRAD(4.2)와 RDA(10.4)에서 가계와 관련된 날짜는 가계와 관련된 중요한 날짜이다. DACS2에서는 일정 면에서 데이터 작성 기관에 의해 채택된 날짜를 기술한다. [년][월][일] 형식으로 정확한 날짜를 기술하고, 년(year) 다음에 물음표를 추가함으로써 거의 추정된 날짜를 기술한다. 년이 불확실하지만 두 해 중 하나로 알려졌다면 [년] 또는 [년] 형식으로, 년이 대략적이라면 대략 [년] 형식으로 날짜를 기술한다(11.1.1). 가계에 대해서는 가계 형성 일이나 활약 기간 같은 가계와 관련된 중요한 날짜를 기술한다. 특정한 연도를 확립할 수 없다면 가계가 활동했던 세기를 기술한다(11.1.6). 가계와 관련된 날짜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RDA나 FRAD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DACS2의 방법은 한국목록규칙에서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가계와 관련된 장소

FRAD(4.2)와 RDA(10.5)에서 가계와 관련된 장소는 가계가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장소, 가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장소(소도시, 시, 주, 국가)이다. DACS2에서는 개체가 기술된 것과 관련된 장소나 관할권의 이름을 기술한다. 적절한 동종의 표준에 규정되었거나 통제 어휘에서 제공되는 형식에서 지명을 기술하고(11.3.1), 가계가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장소명, 관련성이 있는 장소명을 기술한다(11.3.3). 한국에서 족보자료와 같은 가문에 관한 자료의 경우 그 가문이 거주하는 집성촌은 가계와 관련된 장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울

리 성씨별 본관 역시 가계와 관련된 장소와 연관이 깊은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목록규칙에서 족보자료와 같은 경우 가문에 대해서 가계명을 접근점으로 구성할 때에는 가계명에 본관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개별화를 위해서는 집성촌을 추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4) 가계의 저명인사

RDA(10.6)에서 가계의 저명인사는 널리 알려진 가계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가계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에서 가계의 저명인사의 이름을 기술한다. 비록 FRAD에서는 가계의 저명인사가 속성 요소로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에서도 가문을 대표하는 저명인사나 씨족의 시조명을 가계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요소로 삼는 것은 명확하고 빠른 식별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5) 세습 칭호

RDA(10.7)에서 세습 칭호는 가계와 관련된 귀족의 작위 등이다. 가계와 관련된 세습 칭호를 기술하며, 칭호를 복수형의 직순으로 기술한다. 가계와 관련된 세습 칭호는 한국에서는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외국의 귀족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와 북한자료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속성 요소로 포함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가계의 언어

RDA(10.8)에서 가계의 언어는 가계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한 언어를 의미한다.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채택한 언어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언어는 접근점의 부분으로서 기록되지는 않는다. 이는 외국 가계의 경우나 국내에 이주한 외국의 가족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 가계사

FRAD(4.2)와 RDA(10.9)에서 가계사는 가계의 내력과 관련된 정보이다. 가계사 요소에 특정 식별 요소를 나타내는 정보 중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 가계사는 접근점의 부분으로서 기록되지는 않는다. DACS2(11.2.1)에서 역사적 개요에서는 기술 형식으로 주된 생활사건, 활동, 기능, 업적, 기술된 개체의 역할을 기술한다. 성별, 국적, 가계, 종교나 정치적 소속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기술의 요소로 낱짜를 작성하여 넣는다. 아울러 DACS2에서는 기술된 개체의 내부 조직을 서술하는데, 가능하면 서술의 요소로 낱짜를 작성하여 넣는다(11.7.1). 그리고 가계 구성원들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가계 관계를 기술한다(11.7.3). 기록물의 경우에는 가계와 관련된 자료가 많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DACS2에서는 RDA에 비해 가계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록규칙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록관이나 박물관에서도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사의 경우 한국목록규칙 개정 시에 DACS2의 방식을 적용해 보

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가계의 식별기호

RDA(10.10)에서는 가계의 식별기호는 가계 또는 가계의 대리인과 관련된 문자열을 의미 하는데, 어떤 가계를 다른 가계와 구분해 준다. 가계의 식별기호를 기술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식별기호 앞에 해당 식별기호를 부여한 기관명이나 기관의 식별기호를 기술한다. 족 보도서관과 같은 성씨별 가계에 대한 자료가 많은 기관에서는 성씨별, 파별, 집성촌별 가계에 대한 개별 식별기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계의 식별기호는 한국목록규칙에서도 유용한 속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접근점의 구성

AACR2R의 표목은 RDA에서 특정 개체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 코드 등으로 정의되는 접근점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접근점의 개념은 FRAD의 제어된 접근점이 RDA에 반영된 것으로 접근점에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이 있다(안서현, 이창수 2014, 244). FRAD의 제어된 접근점은 가계에 근거한 접근점을 포함하는데, RDA에서 이러한 접근점은 가계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이다. KCR4에서 이미 접근점의 개념은 도입되었지만 접근점의 구성과 기술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는 KCR2나 AACR2의 표목과 참조의 기술 방법을 적용하거나 전거제어에 막연히 미루어 버림으로서 방치되어온 측면이 있다. 한국목록규칙을 RDA를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시점에 있어서 이 접근점의 구성과 기술 방법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표목과 참조에서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목록원칙규범(IFLA 2009)에서 천명한 원칙의 적용이기도 하다. 가계의 접근점 구성과 기술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거형 접근점

RDA(10.10.1)에서 가계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할 때는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근거로 채택된 가계명을 사용하고 가계유형이나 가계와 관련된 낱자를 추가하며, 다른 접근점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계와 관련된 장소나 가계의 저명인사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예는 5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Branson (Family)

Donald (Clan)

Pahlavi (Dynasty : 1925-1979)

Yan (Family : Philippines)

Peale (Family : Peale, Charles Willson, 1741-1827)

나. 이형 접근점

RDA(8.1.4)의 이형 접근점은 개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대체하는 접근점으로 정의되는데, AACR2R의 보라 참조는 RDA에서 이형 접근점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KCR2에서는 표목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RDA(10.10.2)에서 가계를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할 때는 접근점에 대한 근거로 이형 가계명을 사용하고 가계의 유형을 추가하며, 접근점의 식별에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면 가계와 관련된 날짜, 가계와 관련된 장소, 가계의 저명인사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Romanof (Dynasty)

Nayak (Dynasty : 1739-1815 : Sri Lanka)

IV. 가계의 관계 기술

1. 가계와 자원 간의 관계 기술

FRAD에서는 FRBR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과 단체에 더하여 가계가 추가되었다. 이를 반영한 RDA에서는 가계와 FRBR 제1집단의 개체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계와 자원 간의 관계에서 추가 되는 것은 가계와 개별자료 간의 관계 즉 가계가 개별 자료의 소유권자가 되거나 소장자가 되는 경우이다. 또한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로서의 가계와 구현형 간의 관계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가계와 저작 또는 표현형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소규모 가족이 창작물을 작성하거나 기여자로서 역할을 할 때 이루어 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극히 드문 일이다. 가령 성산이씨 가문에서 족보를 편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창작자는 성산이씨 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명인 성산이씨 족보편찬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목록규칙에서도 가계와 자원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가. 가계와 저작

가계와 저작 간에는 창작자의 관계가 있다. 저작과 관련된 가계에 대한 정보는 저작을 포함하는 자원에서 채택된 정보원에 나타난 기재사항으로부터 입수한다. 기재 사항이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자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타 기재 사항, 자원의 내용에만 나타나는 정보,

기타 정보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RDA 19.1.1). 창작자로서의 가계는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가계이며, 저작의 창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가계를 포함한다. 저작의 창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가계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편집본 내용의 선정, 각색, 편집 등이 새로운 저작의 창작에 효과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종합 저작의 편찬에 책임이 있는 가계는 편집본의 창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 원작의 특성이나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저작의 수정에 책임이 있는 가계는 새로운 저작의 창작자로 간주된다(RDA 19.2.1.1). 저작과 관련된 기타 가계로는 가계가 서신의 수신자, 기념논문집의 기념 대상자, 감독자, 영상물 촬영자, 후원자, 전시회나 이벤트의 주최자 등이 되는 경우이다(RDA 19.3.1.1). 가계가 저작에 대해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외의 것을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하여 표기할 때에는 표현형과 구현형의 관련자들과 명확히 구별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가계와 표현형

가계와 표현형 간에는 기여자의 관계가 있다. 표현형과 관련된 가계에 대한 정보는 표현형을 포함하는 자원에서 채택된 정보원에 나타난 기재사항으로부터 입수한다. 기재 사항이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자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타 기재 사항, 자원의 내용에만 나타나는 정보, 기타 정보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RDA 20.1.1). 기여자로서의 가계는 표현형을 통해 저작의 실현에 기여한 가계이며, 이는 편집자, 번역자, 편곡자, 실연자 등을 포함한다. 해설, 삽화, 추가 음악 부분 등을 수반하는 주요 저작으로 구성된 표현형에 대해서는 해설자, 삽화가, 추가 음악 부분 작곡가 등이 기여자로 간주된다(RDA 20.2.1.1). 표현형과 관련된 이들 기여자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에서는 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접근점의 측면에서 소외되어 오던 것으로 창작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 가계와 구현형

가계와 구현형 간에는 미출판 자원의 제작자 그리고 출판 자원의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기타의 관계가 있다. 구현형과 관련된 가계에 대한 정보는 기술된 자원에서 채택된 정보원에 나타난 기재사항으로부터 입수한다. 기재 사항이 애매하거나 불충분하다면 자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타 기재 사항, 자원의 내용에만 나타나는 정보, 기타 정보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RDA 21.1.1). 미출판 자원의 제작자는 조각, 조립, 구성 등 미출판물 형식의 자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가계이다(RDA 21.2.1.1). 발행자는 자원을 출판, 발간, 발행에 책임이 있는 가계이다(RDA 21.3.1.1). 배포자는 자원의 배포에 책임이 있는 가계이다(RDA

21.4.1.1). 제조자는 인쇄, 복사, 鑄造 등 출판 형식의 자원에 책임이 있는 가계이다(RDA 21.5.1.1). 구현형과 관련된 기타 가계로는 가계가 북 디자이너, 製版者 등이 되는 경우이다(RDA 21.6.1.1). 구현형과 관련된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등은 전통적인 목록에서는 서지기술의 요소로는 기재가 되었으나 검색을 위한 접근점으로는 취급되지 않았다. 가계와 관련된 구현형은 출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개체에 비해 높으므로 이들 구현자들이 접근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구현자들의 접근점에 대해서도 한국목록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가계와 개별자료

가계와 개별자료 간에는 소유권자와 소장자의 관계가 있다. 개별자료와 관련된 가계에 관한 정보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다(RDA 22.1.1). 소유권자는 개별자료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가계이다(RDA 22.2.1.1). 소장자는 개별자료의 법적 관리권을 가진 가계이다(RDA 22.3.1.1). 개별자료와 관련된 기타 가계로는 가계가 큐레이터, 제본가, 복원가 등이 되는 경우이다(RDA 22.4.1.1). 앞서 언급한 대로 가계와 개별자료 간의 관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령 귀중서의 경우 소유권자, 소장자, 관리권자 등으로서의 가계는 매우 중요한 서지기술의 요소가 된다.

2. 가계와 개인, 가계, 단체 간의 관계 기술

서지기술에 있어서 FRBR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과 단체 그리고 FRAD에서 추가된 가계 간의 관계는 목록자 주기 또는 정보 주기를 통하거나 전거 데이터 상으로 표현된다

가. 가계와 개인

FRAD(5.3.2)에서 개인과 가계 간의 관계에는 구성원 관계가 있다. 이것은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 간의 연결(도보라 참조) 및(또는)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RDA에서 전거형 접근점 및(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계와 관련된 개인(예, 가계의 구성원)은 관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관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RDA 30.1.1.1). 이러한 관계 중에는 후손들과 개인의 관계도 있는데, 여기서 후손들은 특정한 개인의 후손인 가계이다(RDA K.3.1). 가계와 개인의 관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RDA의 규정에 더하여 가문과 그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후대 자손을 代孫의 형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KCR2에서 19세기 중엽 이전의 인도인명은 개인명(보통 첫째이름)부터 채기하고 가족명

또는 성(보통 셋째이름)부터는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가계와 개인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KCR2 52a).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거주하는 남방계 몽골족의 한 분파인 베트남(安南)인의 인명은 대체로 세 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낱말은 가족명 또는 성이고, 두 번째 낱말은 성별, 가족의 차서(3남, 2녀 등) 또는 계급과 작위, 그리고 세 번째 것이 개인명이다. 가족명을 시작으로 기입된 베트남인명은 개인명으로부터는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여기서도 가계와 개인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KCR2 52b).

다. 가계와 가계

FRAD(5.3.4)에서 가계 간의 관계에는 족보 관계가 있다. 족보 관계는 가계와 그 가계의 선대 또는 후대 가계 간의 관계인데, 이것은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 간의 연결(도보라 참조), 목록자 주기 및(또는)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RDA에서 가계와 관련 가계의 관계는 전거형 접근점 및(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계와 관련된 가계 간의 관계이다(RDA 31.1.1.1). 관계의 설명은 전거형 접근점으로 표현된 가계와 관련 가계의 관계를 정교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보인데, 필요하다면 이러한 관계의 설명을 기술한다(RDA 31.2.1). 이러한 관계 중에는 자손가계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가계와 자손인 가계와의 관계를 의미한다(RDA K.3.2).

라. 가계와 단체

FRAD(5.3.5)에서 가계와 단체 간의 관계에는 설립 관계와 소유 관계가 있다. 설립 관계는 가계와 그 가계가 설립한 단체 간의 관계이고, 소유 관계는 가계와 그 가계가 소유한 단체 간의 관계이다. 이것은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전거형 이름 간의 연결(도보라 참조), 목록자 주기 및(또는) 정보 주기를 통해 전거 데이터에서 표현된다. RDA에서 가계와 관련 단체 간의 관계는 전거형 접근점 및(또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계와 그 관련 단체 간의 관계이다(RDA 32.1.1.1). 관계의 설명은 전거형 접근점으로 표현된 가계와 관련 단체의 관계를 정교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보인데, 필요하다면 이러한 관계의 설명을 기술한다(RDA 32.2.1). 이러한 관계는 RDA에서 설립 가계와 후원 가계로 유형화되는데, 이 관계는 단체를 설립한 가계와 후원한 가계를 의미한다(RDA K.3.3). 가계와 단체와의 관계 중에 설립관계 이외에 FRAD에서는 소유관계를, RDA에서는 후원관계를 별개로 제시하고 있다. 소유관계와 후원관계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후원은 하되 소유는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V.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위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

FRAD, RDA, DACS2 등의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개정 추세를 반영하여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을 위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R3와 KCR4에서는 표목에 관한 규정 자체도 없고, KCR2에서는 특수형의 동양인명 중 인도인명과 베트남(안남)인명에 포함된 가족명의 참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 가계명의 속성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FRAD와 RDA에서 가계를 별도의 개체로 취급하여 그 속성과 관계를 규정하였듯이 앞으로의 KCR의 개정에서 자원의 속성 규정에서는 가계를 별도의 속성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도 FRBR의 제1그룹의 개체인 자원과 가계 간의 관계 기술과 가계를 포함한 FRBR의 제2그룹의 개체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속성 기술 요소로는 FRAD에서의 활동분야는 개인과는 달리 가계의 경우 진력하고 연구하고 종사한 분야를 가계단위로 특정화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볼 때 RDA에서는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목록규칙에서도 가계의 속성 기술요소로 활동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DA에서 가계의 저명인사를 포함하고 있고, KCR2에서 베트남인명에 가족명 다음에 계급과 작위가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목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세습칭호를 가계의 속성 기술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늘날 가족단위로 전거레코드를 구성할 경우에 그 식별기호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별기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셋째, 가계명은 채택된 가계명과 이형 가계명으로 범주화하고, 채택된 가계명에는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동일 가계에 대한 상이한 이름, 이름의 변경, 성, 왕실명·왕조명·씨족명 등의 기술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형 가계명에는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 세습 칭호의 기술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채택된 가계명이 한국인의 집안이나 가문 또는 문중일 경우에는 씨족명으로 성씨뿐만 아니라 본관과 파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예, 성산이씨 정언공파).

넷째, 가계명 이외의 속성 기술 요소로는 가계의 유형, 가계와 관련된 날짜, 가계와 관련된 장소, 가계의 저명인사, 세습 칭호, 가계의 언어, 가계사, 가계의 식별기호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계의 유형에 대한 한글 용어는 민법상의 가계인 경우는 ‘가족’으로, 집안이나 문중 단위의 경우에는 ‘가문’으로, 왕조시대나 입헌군주제 국가의 왕가의 경우에는 ‘왕실’이나 ‘왕조’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계와 관련된 날짜의 기술 방법은 DACS2에서의 규정을 참고하여 가계의 형성일이나 활약 기간 같은 중요한 날짜를 기술하고, 특정할 수 없다면 활동했던 세기를 기술한다. 장소의 경우도 가계가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장소명, 관련성이 있는 장

소명을 기술하되, 가문의 경우는 족보상에서 성씨별 본관과 파명에 대하여 집성촌을 기준으로 세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성촌명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계사의 기술 형식으로 주된 생활사건, 활동, 기능, 업적, 역할을 기술하고, 종교나 정치적 소속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가능하면 서술의 요소로 관련 낱자를 작성하여 넣는 등의 구체적인 기술 방법에 대해서는 DACS2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접근점의 구성은 RDA의 규정을 반영하여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구분한다. 전거형 접근점은 규칙에 따라 채택된 개체의 우선하는 제어형 접근점이다(IFLA 2009). 이형 접근점은 개체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접근점이다. 전거형 접근점이나 이형 접근점의 구성은 채택된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형의 이름을 사용하느냐의 차이 일뿐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에 대한 전거형과 이형의 접근점 구성은 가계명, 가계유형, 관련 낱자, 관련 장소, 가계 중의 저명인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작은별(가족)
- 이왕가(왕실)
- 원저왕가(왕실)
- 고려(왕조 : 918-1392)
- 성산이씨 정언공파(가문 : 양전)
- 덕수이씨(가문 : 이순신, 1545-1598)
- 삼성가(가문 : 이병철, 1910-1987)

앞서 살펴본 도서관 현장에서의 가계 기술의 실상에서 가계에 대하여 비통제색인어나 일반 주제명으로 기술하던 것을 주제명부출표목 600필드를 적용하고 접근점의 구성에 대한 이상의 제안을 반영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600 38 ▼ a성산 이씨(가문) [星山李氏]
- 600 38 ▼ a안동 권씨 복사공파(가문) [安東權氏僕射公派]
- 600 38 ▼ a김해 허씨 죽계공파(가문) [金海許氏竹溪公派]
- 600 38 ▼ a이왕가(왕실) [李王家]
- 600 38 ▼ a김해 김씨 삼현파(가문 : 진주진안) [金海金氏三賢派]
- 600 38 ▼ a고령 박씨(가문) [高靈朴氏]
- 600 38 ▼ a덕수 이씨(가문 : 이순신, ▼ d1545-1598) [德水李氏]
- 600 38 ▼ a고려(왕조 : ▼ d918-1392) [高麗]

여섯째, 가계와 자원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기술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 가계와 저작 간에는 가계가 저작의 창작자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서신의 수신자, 기념논문집의 기념 대상자, 감독자, 영상물의 촬영자, 전시회나 이벤트의 주최자 등이 되는 것이다. 가계와 표현형 간에는 기여자의 관계가 있다. 기여자로서의 가계는 편집자, 번역자, 편곡자, 실연자, 해설자, 삽화가, 추가 음악 부분 작곡가 등이 포함된다. 가계와 구현형 간에는 미출판 자원의 제작자 그리고 출판 자원의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기타 가계가 복 디자이너, 製版者 등이 되는 경우이다. 가계와 개별자료 간에는 소유권자와 소장자의 관계가 있다. 기타 가계가 큐레이터, 제본가, 복원가 등이 되는 경우이다.

일곱째, 가계와 개인, 가계와 가계, 가계와 단체 간의 관계 기술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 가계와 개인의 관계는 전거형 접근점이나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계와 관련된 개인 즉 가계의 구성원 또는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과의 관계이다. 가계와 개인의 관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적용할 때는 가문과 그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후대 자손을 代孫의 형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예, 영일정씨 가문과 그 시조인 정중은의 11대손인 정몽주와의 관계). 가계와 가계 간의 관계는 전거형 접근점이나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계와 관련된 가계 간의 관계이다. 가계와 그 가계의 선대 또는 후대 가계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가계와 관련 단체 간의 관계는 전거형 접근점이나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계와 그 관련 단체 간의 관계이다. 단체를 설립한 가계와 그 단체와의 관계, 단체를 후원한 가계와 후원을 받은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단체를 소유한 가계와 그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계와 단체와의 관계 중에 설립관계 이외에 FRAD에서는 소유관계를, RDA에서는 후원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VI. 결론

한국목록규칙 제2판까지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계의 속성 기술에 관한 단편적인 사항이라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판에서는 이마저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미루어 버림으로써 가계에 대한 기술 원칙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도서관 현장에서 가계에 대한 기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주제명표목 기입이 MARC 상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계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RDA를 중심으로 항목에 따라서는 FRAD, DACS2, KCR2의 검토를 통해 향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의 ‘family’를 민법상의 ‘家族’의 범위를 넘어 씨족, 왕조, 가문 또는 다른 유사 집단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家系’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한 민법상의 가족 단위 보다는 씨족이나 가문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인 우리의 도서관 현장을 감안한 용어 선택이기도 하다.

가계를 별도의 속성으로 분리하여 속성 기술 요소로 가계명, 가계의 유형, 가계와 관련된 날짜, 가계와 관련된 장소, 가계의 저명인사, 세습 칭호, 가계의 언어, 가계사, 가계의 식별기호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계명은 채택된 가계명과 이형 가계명으로 범주화하고, 채택된 가계명에는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동일 가계에 대한 상이한 이름, 이름의 변경, 성, 왕실명·왕조명·씨족명 등의 기술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형 가계명에는 대체 언어 형식의 이름, 세습 칭호의 기술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채택된 가계명이 한국인의 집안이나 가문 또는 문중일 경우에는 씨족명으로 성씨뿐만 아니라 본관과 파명도 포함되도록 한다. 가계의 유형은 가족, 가문, 왕실이나 왕조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가계와 관련된 장소는 가문의 경우 집성촌명을 추가한다. 접근점의 구성은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으로 구분한다. 가계에 대한 전거형과 이형의 접근점 구성은 가계명, 가계유형, 관련 날짜, 관련 장소, 가계 중의 저명인사 등이 포함된다.

가계와 자원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관계 그리고 가계와 개인, 가계와 가계, 가계와 단체 간의 관계 기술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히 가계와 개인의 관계는 가문과 그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후대 자손을 代孫의 형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가계와 그 가계의 선대 또는 후대 가계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 가계와 관련 단체 간의 관계는 단체를 설립한 가계와 그 단체와의 관계, 단체를 후원한 가계와 후원을 받은 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단체를 소유한 가계와 그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끝으로, RDA를 반영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판이 이미 발표되었고, 전거통제용 개정(안)이 나와 있는 마당에 가계의 속성과 관계 기술의 준거가 되는 한국목록규칙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가 이 개정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199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99.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전거통제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5.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전거통제용 K SX 6006-4 -. 개정(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편저. 201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 통합서지용 -

- KS X 6006-0 -. 개정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편저. 200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김정현, 문지현, 김효숙. 2013. 『RDA의 이해: AACR2에서 RDA로』.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 박진희. 2009.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11-138.
- 안서현, 이창수. 2014. 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1-27.
- 이미화. 2010.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51-272.
- 이미화. 2011a.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23-42.
- 이미화. 2011b.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103-121.
- 韓國圖書館協會 制定. 1983. 『韓國目錄規則』. 3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韓國圖書館協會 編. 1966.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2003.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ALA. 2002.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 rev.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IFLA. 2009.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http://www.ifla.org/files/cataloguing/icp/icp_2009-en.pdf> [cited 2015. 6. 19].
- IFLA Study Group on the FRBR.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 Final Report*. München: K.G. Saur.
- 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 A Conceptual Model*. München: K.G. Saur.
- JSC for Development of RDA. 2010.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영미권의 차세대 목록규칙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⑨(최종) (8-10, 17-22, 24-32), <http://nl.go.kr/krili/webzine/publish/krili/200912_02/pdf/policy01_1230.pdf> [인용 2014. 5. 23].
- Library of Congress,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2015a.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 1999 Edition, Update No. 1 (October 2001) through Update No. 20 (April 2015). <<http://www.loc.gov/marc/authority/>> [cited 2015. 7. 6].

- Library of Congress,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2015b.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1999 Edition, Update No. 1 (October 2001) through Update No. 20 (April 2015). <<http://lcweb.loc.gov/marc/bibliographic/>> [cited 2015. 7. 6].
- Mering, Margaret, editor. 2014. *The RDA Workbook : Learning the Basics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Santa Barbara, Calif.: Libraries Unlimited.
- RDA Toolkit Home Page. <<http://access.rdatoolkit.org/>> [cited 2015. 9. 7].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13. *Describing Archives : A Content Standard*. 2nd ed.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eohyeon, Changsoo Lee. 2014. "A Study on the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in Cataloging Rul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1-27.
- Kim, Jeong-Hyen, Ji-Hyun Moon, Hyo-Sook Kim. 2013. *Introduction to RDA: from AACR2 to RDA*.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96. *Korean Cataloging Rules*,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83. *Korean Cataloging Rules*, 3r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Mihwa. 2010. "A Study on Suggestion for KCR and KORMARC by Analyzing Work and Expression Element of RDA in MARC."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51-272.
- Lee, Mihwa. 2011a.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3-42.
- Lee, Mihwa. 2011b.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ource Types of RDA to KCR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03-121.

- National Library of Korea. 1993.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 Monograph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1999.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 Authorit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6.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 Integrated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 Integrated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Revised Edi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5.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 Authority*. Revised Tentative Pla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Park, Jin-Hee. 2009. "Comparative Analysis on Descriptive Rules of RDA and KCR4."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11-138.